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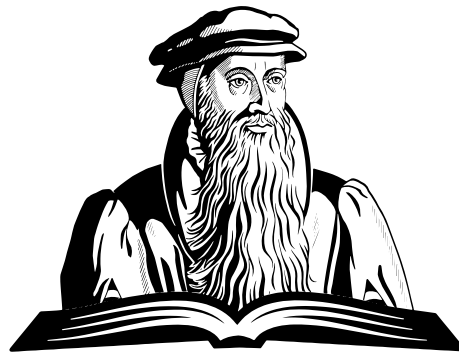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

#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

## 강의 29: 사명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 학습단계

##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 강의 29

## 사명

### 강의 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를 불러서 복음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온 세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 본문: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 강의 스크립트 29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프로젝트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담은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은 집을 짓는 것에서 군사작전과 직장에서의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설명없이 천국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최종적인 의도와 자신의 교회가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야 할 내용을 주셨는데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구약성경은 이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접근방법에 있어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라들을 복음화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사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예배는 복음전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 땅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모든 개별 신자들에게 시간 속에서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소식이 반드시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주신 사명 곧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내라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구약성경이 이에 대해서 하는 말과 그것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 구속계획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구속사역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2:7,8에는 성자에게 주시는 성부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창세기9:24은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언약과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은 그 언약으로 나오며 미래에는 그 언약을 엄청나게 확장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12:3에서 하나님도 아브람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질 때 신명기 4:6-8을 보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빛이 되어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에게 비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들도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복음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67:2-4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60:3은,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7:14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강의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는 사실에 대한 다른 많은 예시가 구약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기에 아브라함의 택한 자손과 함께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이방나라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1:16에서 로마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으로 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전개해 나가시는 가운데 중요한 전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와서 보라”를 강조하고 있다면 신약성경은 “가서 말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아야 했습니다. 곧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배워야 했습니다. 멀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자신이 친히 보기 위해서 왔던 시바의 여왕의 경우가 한 예입니다. 몇몇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에 들어왔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이 된 그 장소에 있는 살고 있던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 아니면 히위 족속이었던 우리야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복음에 대해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와서 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이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교회에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28:19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은 “가서 말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1:8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땅을 뒤덮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마태복음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련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러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조그맣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온 땅을 뒤덮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룩에 대한 비유도 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반죽에 넣어서 전체 반죽과 빵에 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얼마되지 않는 다른 추종자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니면 오순절 이전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16:18과 같이 자신의 교회에 약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은 이 모든 것이 가장 초기에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로마를 넘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거기에 이르기 전에 죽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서15:24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귄다 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 보내주기를 바랍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한 통치를 통해서 이 복음의 구상을 성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상명령 앞에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다시 마태복음28장으로 돌아가서 18-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11:15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천국에 대한 묘사는 그 자체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 곧 이 복음의 풍성한 결실에 대한 예시입니다.

성경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21:24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가 따라야 하는 교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복음명령은 참된 교회의 심장 근처에 있습니다. 교회는 해외선교를 통한 복음의 전파에 무관심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우선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여 민족들이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성취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를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주제로 인도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은 신자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7:9,10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펼쳐진 모습과 제자가 된 민족들이 그분의 발등상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도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목적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적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4:11은,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4:23,24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그 진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다음의 두 가지는 단순히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국 기독교의 전체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이다. 이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예배를 받으시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로, 우리가 얻는 구원의 출처에 대한 지식이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의 다른 부분에서 따로 구분하여 떼어 두어야 합니다. 마치 안식일이 한 주일의 다른 날들과 구분되고 성찬이 다른 식사와 구분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이는 항상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 왔습니다. 히브리서12:22-29과 같은 신약성경의 모임만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에도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의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 예배가 구체적으로 수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명령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속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존 칼빈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자신들이 고안해낸 것들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것을 순결하고 신실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조건도 함께 주셨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하여 지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여러 강의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허황되게 상상하여 만들어 낸 그 어떤 인간적인 혁신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명하신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신명기12:32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1항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옳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상이나 거룩한 성경이 명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상상하고 고안했거나 사탄의 제안에 따라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의 행위들 속에는 일상적인 예배의 행위로서 성경읽기,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편찬양, 기도,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식의 시행이 포함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모든 실가닥들은 함께 엮여져서 순결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우상숭배와 거짓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17:29에서 아테네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1:21-25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규정을 정하실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20장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믿음 혹은 예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교훈과 명령에서 이 양심이 자유하도록 하셨다” 교회는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주권적인 기관이 되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행위를 고안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 이 원리는 제2계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예배를 정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첫번째 예는, 우리가 앞 강의에서 살펴본 앗당,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레위기10:1-3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왕들도 이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습니다. 웃시야와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경건한 위정자들은 이 원리를 고수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요시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5:17-19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킬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예배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성결함에 대한 거룩한 질투를 보이셨습니다. 신약성경의 남은 부분도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12:28-29

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자연적인 우상숭배에서 구하여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예배의 순결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래야 사람들을 한가지 형태의 우상숭배에서 데려다가 그것을 대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가지고 민족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는 구속의 좋은 소식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모든 찬양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이 사명이 어떻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속한 남자들과 여자 들 소년들과 소녀들을 인도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불러서 복음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온 세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정점인 마지막 날과 그 이후에 대하여 드러내실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